

#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 직업가치관, 걱정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

정경숙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 The Influence of the Major Selection Motive, Occupational Values and Worry on Nursing Student's Grit

Kyeong Sook Jeong  
Department of Nursing, Bus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 직업 가치관과 걱정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자료는 B시에 소재하는 간호대학생 167명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설문조사로 수집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Scheffe 사후검정,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그릿은 평균 3.22점, 전공선택 동기는 평균 3.59점, 직업 가치관 평균은 4.06점, 걱정 평균은 3.06점이었다. 그릿은 전공선택 동기, 직업 가치관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걱정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학 전공 자신감, 걱정, 직업 가치관-외적 가치였으며, 이들 요인에 의한 그릿 설명력은 24.1%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간호학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간호대학생의 고민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major selection motive, occupational values, and worry on the grit of nursing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1 to November 15, 2021, enrolling 167 nursing students in a college in B city. The data sheets were analyzed by applying the SPSS 21 program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rit level of the participants was 3.22, and the levels of the major selection motive, occupational values, and worry were 3.59, 4.06, and 3.06, respectively. Grit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major selection motive( $r=.16, p=.036$ ), occupational values( $r=.22, p=.005$ ), and worry( $r=-.32, p<.001$ ). According to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grit of nursing students were confidence in the nursing major, worry, and occupational values-extrinsic values.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factors was determined to be 24.1%.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 program to strengthen the 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toward the nursing major selected.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determine the concerns of the nursing students and develop a program to strengthen their self-efficacy.

**Keywords** : Major Selection Motive, Occupational Value, Worry, Grit, Nursing Student

---

\*Corresponding Author : Kyeong Sook Jeong(Bus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mail: jksbook@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19, 2022

Accepted December 7, 2022

Revised October 13, 2022

Published December 31, 2022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성인기 및 대학생활의 성공적인 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비인지적 특성의 그릿(Grit)이 주목을 받고 있다[1].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열정과 인내로서, 힘든 역경이나 실패에도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성격 특성을 말한다. 목표와 흥미를 쉽게 또는 자주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지속하려는 경향을 말하는 흥미의 유지성은 열정에 해당하며, 목표달성을 위하여 열심히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실패, 좌절, 역경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꾸준히 계속하는 경향인 노력의 지속성은 인내에 해당한다[2]. 그릿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 수정 가능하며 후천적 노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3]. 간호대학생의 그릿은 많은 학업과 임상실습을 지속할 수 있는 끈기와 열정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판단되며[4], 학업 적응과 장기적인 성취를 위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속성을 동반한 열정인 그릿은 간호대학생 때부터 향상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역량이라 할 것이다[5].

대학에서 대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자질을 개발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학생의 전공선택은 단순히 지식이나 학문적 선택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선택 중 하나로 사회 진출 전 자신의 능력을 최종 완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6,7]. 이렇듯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전공선택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6] 자신의 적성과 흥미,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삶의 중대한 결정 과정이 될 것이다[8]. 최근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맞춰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성적이나 주위의 권유, 취업 용이성 등에 따라 전공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많은 학생이 전공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한다[9]. 간호학과 또한 이론 과목이 타 학과보다 많으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8] 최근 많은 연구에서 취업을 위해 간호학을 선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5,10,11]. 예비 의료인으로서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운 임상현장에서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인내심과 의지력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므로[12],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는 학업뿐 아니라 추후 간호 실무를 지속

하고자 하는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릿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직업 가치관은 자신이 소속된 직업이나 직무에 대해 개인이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한 직무에 대해 가지는 견해보다는 보편적인 직업에 대한 태도이며, 개인의 직업선택 및 직업 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업교육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인이다[13,14]. 간호사란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직업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15] 직업 가치관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입학과 동시에 간호사라는 직업의 진로가 정해져 있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기술을 배워 나가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바람직한 직업 가치관 정립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16]. 또한, 간호대학생의 직업 가치관이 명확하다면 전공에 더욱 충실하게 임하게 되어[8] 장기 목표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목표와 흥미를 일관되게 지속하려는 그릿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걱정은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인지적 현상으로[17], 정상적인 경우 증상이 일정 시간 지속되다가 사라지지만 병리적 걱정의 경우 침투적인 걱정 사고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며 일상적인 걱정에 비해 더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18]. 부정적 감정의 과도한 걱정이 지속되면 학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며[10] 개인의 생활에 심각한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다[19]. 선행연구[11]에서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그릿을 감소시키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걱정이 간호대학생들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그릿 영향요인으로 학점, 학업 성취도, 학업 스트레스, 긍정심리자본[5], 자기효능감[20] 등이 확인되었으나 직업 가치관과 걱정을 포함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그릿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선택 동기, 직업 가치관, 걱정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전공 선택 동기, 직업 가치관, 걱정, 그릿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그것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전공선택 동기, 직업 가치관, 걱정이 그것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 직업 가치관, 걱정이 그것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 소재의 일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 가운데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G\*power program 3.1.9에 근거하여 유의수준 .05(양측검정), 효과 크기 medium .15, 검정력 .90, 예측변수 수 10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표본의 크기는 147명이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170부를 배포하였다. 이 중 부적절한 응답을 한 3명의 설문지를 제외하여 탈락률은 1.8%였으며, 최종 167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 2.3 연구 도구

#### 2.3.1 전공선택 동기

전공선택 동기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Han[14]이 구성하여 타당화 한 도구로, 개인적 동기 4문항, 사회적 동기 3문항,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선택 동기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Han[14]의 연구에서 개인적 동기 신뢰도 Cronbach's  $\alpha=.85$ , 사회적 동기 신뢰도 Cronbach's  $\alpha=.6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개인적 동기 신뢰도 Cronbach's  $\alpha=.88$ , 사회적 동기 신뢰도 Cronbach's  $\alpha=.62$ 이었다.

#### 2.3.2 직업 가치관

직업 가치관은 Ahn과 Lee[21]가 구성한 것을 Park과 Lee[22]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위해 타당화 한 것으로, 내재적 가치 3문항, 외재적 가치 4문항, 총 7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 가치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과 Lee[21]의 연구에서 내재적 가치 신뢰도 Cronbach's  $\alpha=.73$ , 외재적 가치 신뢰도 Cronbach's  $\alpha=.7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재적 가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0$ , 외재적 가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2$ 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적인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2$ 이었다.

#### 2.3.3 걱정

걱정은 Meyer, Mileer, Metzger와 Borkovec[23]이 개발하고 Kim과 Min[24]이 한국어로 번안한 Penn 걱정 질문지로, 만성적이며 통제불가능한 걱정의 빈도 및 강도를 측정한다. 걱정관여와 걱정부재의 2개 하위영역,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걱정 증상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Kim과 Min[2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 이었다.

#### 2.3.4 그것

그것은 Duckworth와 Quinn[3]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Song과 Lim[12]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로, 노력 지속 3문항과 흥미 유지 3문항,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것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Song과 Lim[1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3$ 이었으며 노력 지속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7$ , 흥미 유지 신뢰도는 Cronbach's  $\alpha=.6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노력 지속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8$ , 흥미 유지 신뢰도는 Cronbach's  $\alpha=.68$ 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5$ 이었다.

### 2.4 윤리적 고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들에게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응답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종료 즉시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을 완료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 2.5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WIN 21.0 program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 전공선택 동기, 직업 가치관, 걱정, 그릿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의 차이는 t-test와 ANOVA,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로 하였으며, 전공선택 동기, 직업 가치관, 걱정, 그릿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Durbin Watson으로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하였으며,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정하였다. 또한, 잔차분석을 통해 모형의 선형성(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 및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을 확인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여학생이 79.6%였으며 평균 나이는 20.9세였다. 종교가 없는 학생이 76.0%로 나타났다.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이 75.4%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 생활에도 62.9%가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대상자가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대상자의 82.0%가 본인의 대인관계가 좋다고 인지하였다. 간호학 전공에 대하여 자신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2.1%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도 40.7%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N=16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Gender	Male	34	20.4
	Female	133	79.6
Age(year)	≤20	143	85.6
	21-30	15	9.0
	≥31	9	5.4
	20.9±5.99		
Religion	Yes	40	24.0
	No	127	76.0
satisfaction with the major	Satisfaction	126	75.4
	Moderate	34	20.4
	Dissatisfaction	7	4.2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Satisfaction	105	62.9
	Moderate	55	32.9

Perceived health status	Dissatisfaction	7	4.2
	Healthy	125	74.9
	Moderate	35	21.0
Perceived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137	82.0
	Moderate	28	16.8
	Bad	2	1.2
Confidence on Nursing major	Confident	87	52.1
	Moderate	68	40.7
	Little confident	12	7.2

#### 3.2 전공선택 동기, 직업 가치관, 걱정 그릿 정도

대상자의 전공선택 동기는 3.59±0.57점이었으며, 직업 가치관 4.06±0.50점, 걱정은 3.06±0.74점이었으며, 그릿은 3.22±0.61점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Table 2. Degrees of Grit, Major selection motive, Occupational values and Worry (N=167)

Variables	Min	Max	M±SD
Grit	1.67	4.50	3.22±0.61
perseverance of effort	2.00	4.50	3.27±0.57
consistency of interest	1.00	5.00	2.99±0.76
Major selection motive	1.57	5.00	3.59±0.57
personal motivation	1.00	5.00	3.84±0.82
social motivation	1.33	5.00	3.25±0.61
Occupational values	2.86	5.00	4.06±0.50
intrinsic values	2.33	5.00	4.10±0.59
extrinsic values	2.50	5.00	4.03±0.60
Worry	1.00	5.00	3.06±0.74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은 전공 만족(F=9.12, p<.001), 대학생활 만족(F=5.90, p=.003), 대인관계(F=4.91, p=.009), 전공에 대한 자신감(F=19.00, p<.001)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공 만족의 경우, '만족' 군이 '보통' 군보다 그릿 정도가 높았으며, 지각된 대인관계의 경우 ' 좋음' 군이 '보통' 군 보다 그릿 정도가 높았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자신감은 '자신있음' 군이 '보통' 군 보다, '보통' 군은 '자신없음' 군보다 그릿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Differences in Grit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

(N=167)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or F) (p) Scheffe's
Gender	Male	3.11±0.59	-1.19 (.238)
	Female	3.25±0.61	
Age(year)	≤20	3.20±0.60	0.53
	21-30	3.34±0.69	(.592)
	≥31	3.33±0.61	
Religion	Yes	3.10±0.64	-1.52 (.130)
	No	3.26±0.59	
satisfaction with the major	Satisfaction <sup>a</sup>	3.33±0.55	9.12 (.001)
	Moderate <sup>b</sup>	2.85±0.61	
	Dissatisfaction <sup>c</sup>	3.19±0.87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Satisfaction <sup>a</sup>	3.34±0.54	5.90 (.003)
	Moderate <sup>b</sup>	3.02±0.63	
	Dissatisfaction <sup>c</sup>	3.02±0.95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sup>a</sup>	3.25±0.59	0.91 (.403)
	Moderate <sup>b</sup>	3.16±0.62	
	Unhealthy <sup>c</sup>	2.98±0.78	
Perceived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sup>a</sup>	3.28±0.59	4.91 (.009)
	Moderate <sup>b</sup>	2.92±0.60	
	Bad <sup>c</sup>	3.67±0.47	
Confidence on Nursing major	Confident <sup>a</sup>	3.43±0.55	19.00 (.001)
	Moderate <sup>b</sup>	3.08±0.56	
	Little confident <sup>c</sup>	2.50±0.45	

3.4 대상자의 전공선택 동기, 직업 가치관, 걱정, 그것 간의 관계

대상자의 그것은 전공선택 동기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16, p=.036$ )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인 개인적 동기는 그것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27, p<.001$ )를 보였으나 사회적 동기와는 관계가 없었다. 그것과 직업 가치관 또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22, p=.005$ )가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인 내재적 직업 가치관( $r=.18, p=.017$ ), 외재적 직업 가치관( $r=.18, p=.020$ )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그것은 걱정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32, p<.001$ )를 보였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with Grit, Major selection motive, Occupational values and Worry

Variables	GT	MSM	pm	sm	OV	iv	ev	WY
GT	1							
MSM	.16 (.036)	1						
pm	.27 (.001)	.79 (.001)	1					
sm	-.11 (.176)	.55 (.001)	-.08 (.329)	1				

OV	.22 (.005)	.33 (.001)	.31 (.001)	.12 (.130)	1			
iv	.18 (.020)	.37 (.001)	.46 (.001)	-.02 (.790)	.79 (.001)	1		
ev	.18 (.017)	.21 (.007)	.11 (.153)	.19 (.014)	.89 (.001)	.42 (.001)	1	
WY	-.32 (.001)	-.18 (.021)	-.21 (.008)	-.01 (.906)	.05 (.547)	-.11 (.179)	.15 (.059)	1

(GT: Grit, MSM: Major selection motive, pm: personal motivation, sm: social motivation, OV: Occupational values, iv: intrinsic values, ev: extrinsic values, WY: Worry)

3.5 대상자의 전공선택 동기, 직업 가치관, 걱정이 그것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특성 중 그것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전공 만족, 대학 생활 만족, 지각된 대인관계와 간호학 전공에 대한 자신감을 더미 처리하고 전공선택 동기와 직업 가치관의 하위영역, 걱정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Dubin-watson지수를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 상관을 검정한 결과 2.26으로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는 0.870 ~ 0.952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요인 1.050 ~ 1.149로 10 미만으로 확인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으며,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간호학 전공에 대한 자신감 1( $\beta=.62, p<.001$ ), 걱정( $\beta=-.24, p=.001$ ), 간호학 전공에 대한 자신감 2( $\beta=.40, p=.004$ ), 직업 가치관-외재적요인( $\beta=.19, p=.008$ )이 그것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총 24.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F=14.16, p<.001$ )(Table 5).

Table 5. Influential factors on Grit in participants

	$\beta$	t	p	Dubin Watson
(constant)		7.02	<.001	2.26
Confidence on Nursing major1 †	.62	4.44	<.001	
Confidence on Nursing major2 ‡	.40	2.91	.004	
Worry	-.24	-3.34	.001	
Occupational values -extrinsic values	.19	2.68	.008	

Adjusted R<sup>2</sup>=.241, F=14.16 p<.001

Reference group : Little confident

† dummy(Confident=1, Moderate, Little confident=0)

‡ dummy(Moderate=1, Confident, Little confident=0)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그릿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대상자의 전공선택 동기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59 \pm 0.57$ 점으로, 전공선택 동기가 긍정적임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개인적 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8]의 3.57점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 질병 구조의 변화, 의료 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진로와 취업이 안정적이면서 간호사가 전문직종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간호학 전공을 선택[25]한 결과라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가 신입생이라는 것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론과 실습교육의 병행, 국가고시 및 취업 준비 등 다양한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25] 처음 전공선택 동기를 상기시켜 어려운 간호학 전공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직업 가치관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4.06 \pm 0.50$ 점으로, 높은 직업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8]의 4.19보다 낮았으나 다른 도구로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26]의 3.70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직업 가치관의 인식은 대학생들에게 인지적 능력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취업 준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유추할 수 있고,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취업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것은 필수적이며 합리적인 취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27]. 그러나 연구결과가 간호대학생의 학년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이므로 추후 직업 가치관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대상자의 걱정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06 \pm 0.74$ 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10] 3.12점보다는 낮았으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8]의 2.80보다 높았다. 간호학과 특성상 입학 초기부터 많은 학업량과 학년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임상실습 병행 등에 대한 스트레스 노출과 같은 정보에 반응한 결과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간호대학 1학년년부터 간호학과 교육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정보전달로 걱정을 낮추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프로그램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그릿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22 \pm 0.61$ 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3.02점[20], 3.11점[2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3학년 이상이 되면서 학문에 대한 흥미의 일관성과 노력의 지속성인 그릿이 낮아지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른 전공과는 달리 간호대학생은 이론과 실습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서 과중한 학습량과 임상실습지를 옮겨 다니며 실습환경에 적응 및 실습보고서 작성, 실습지에서의 업무과다 등에 의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30]. 그러므로 간호대학에 입학 시부터 고학년까지 간호학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간호직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결하여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그릿은 전공 만족, 대학 생활 만족, 지각된 대인관계, 간호학 전공에 대한 자신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9]에서 그릿이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같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었지만, 대학 생활 만족은 차이가 없었던 연구결과[20]도 있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므로 반복연구를 통한 규명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지각된 대인관계에 따라 그릿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일반대학생이 겪는 일반적인 대인관계뿐 아니라 임상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 많은 직종의 의료인 등 다양한 대상자를 만나야 하므로 대인관계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31]. 그러므로 저학년 때부터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릿은 간호학 전공에 대한 자신감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어려움에 부딪힐 때 과제수행을 포기하거나 노력을 줄이지 않고 더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효능감이 그릿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20]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그릿 향상을 위해 간호학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자신감을 향상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그릿은 전공선택 동기, 직업 가치관과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걱정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변수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항공서비스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32]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8]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그것과 걱정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많은 양의 학업량과 엄격한 교육과정, 학업과 임상실습으로 인해 계속되는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 간호대학생에게 신입생 시기부터 지도교수의 상담 및 대학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학에 대한 걱정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대상자의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호학 전공에 대한 자신감, 걱정, 외재적 직업 가치관이었으며, 그중에서 간호학 전공에 대한 자신감이 간호대학생의 그것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호학 전공에 대한 자신감과 관련된 연구를 거의 찾을 수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Shin[11]의 연구결과 전공에 대한 자신감이 그것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전공 자신감이 높은 경우 그것이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간호하는 학문을 접하면서 긴장감을 느끼고, 임상실습 병행, 국가고시 합격이라는 막중한 과업 수행에 대한 부담감, 개인의 성취와 친구와의 경쟁과 같은 일상과 학업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33]. 본 연구 대상자는 신입생으로, 교육과정이 간호학 입문 전공교과와 대부분 교양교과로 이루어져 아직 전공에 대한 부담감을 크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 간호대학생들은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보다는 취업을 고려하여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10,11] 간호학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켜주어 전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고 국가시험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학년별, 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간호대학생의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걱정이었다. 부정적 감정의 과도한 걱정은 학업뿐 아니라 진로 갈등이나 학업 포기 등으로 이어져 대학 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므로[10]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 등과 연계하여 간호대학생의 걱정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시급하며, 확인된 걱정에 대해 적절히 중재해 줄 수 있도록 학과와 대학의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그것의 영향요인으로 직업 가치관의 하위 영역 중 외재적 직업 가치관이 확인되었다. 외재적 직업 가치관은 직업에 있어서 일에 따르는 보상이나 조건과 결부되는 가치관을 말한다[34]. 간호대학생은 간호직이 전문직으로서 평생 근무할 수 있고 안정적인 보수와 채용이 보장되며, 쉽게 해고를 당하지 않는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26], 간호사 직업에 대해 전통적인 직업 가

치관과 함께 간호의 전문성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지위, 임금, 복지, 직업 안정 등과 같은 보상이나 조건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35]을 알 수 있다. MZ 세대는 다양한 복리후생이나 쾌적한 근무 시설 등 근무환경이 좋고, 직업적 안정, 경제적 보상과 함께 개인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외적보상 추구가 가능한 곳을 좋은 일자리로 인식하고 있다[36]. 최근 간호학과도 졸업생의 증가로 인해 좋은 일자리 취업을 위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다양한 스펙 준비 및 학업성취도 향상 등의 노력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어 그것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신입생 시기부터 간호직에 대한 진로 탐색이나 병원 탐방과 같은 체험 등의 정규, 비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직업 가치관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간호대학생들의 변화된 직업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끈기와 열정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간호학에 대한 자신감, 걱정, 직업 가치관이 확인되었으며, 간호학에 대한 자신감이 간호대학생의 그것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들의 그것 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간호학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론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간호 교육과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입학 시부터 간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간호학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걱정이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지도교수의 꾸준한 관심과 상담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걱정을 확인하고 중재해 주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재적 직업 가치관도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므로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 결과를 확대 해석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걱정이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걱정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걱정에 대한 추

가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전공선택 동기는 그것의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므로 반복연구를 통해 영향력을 확인해보길 제안한다.

## References

- [1] S. N. Sick, C. S. Lee, "The relative levels of grit and their relationship with potential dropping-out and university adjustment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8, pp.61-66, 2014.  
DOI: <https://doi.org/10.14400/JDC.2014.12.8.61>
- [2]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D. R. Kelly,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2, No 6, pp.1087-1101, 2007.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92.6.1087>
- [3] A. L. Duckworth, P. D. Quin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91, No 2, pp.166-174, 2009.  
DOI: <https://doi.org/10.1080/00223890802634290>
- [4] S. H. Cho, K. S. Yun, "Effects of Grit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Nursing Students' Clinical Competenc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14, No 23, pp.117-129, 2020.  
DOI: <https://doi.org/10.12811/kshsm.2020.14.2.117>
- [5] E. Jeong, M. R. Ju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 on Gri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9, pp.309-317, 2018.  
DOI: <https://doi.org/10.14400/JDC.2018.16.9.309>
- [6] E. Y. Oh, K. S. Kim, "The Relationship of Airline Service Major University Students' Major Selection Motivati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rdo Economics Journal*, Vol 21, No 4, pp.59-73, 2018.  
DOI: <http://dx.doi.org/10.20436/OEJ.21.4.059>
- [7] C. T. Logu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Vocational interest themes and college major satisfaction*, Ph.D dissertation, Tennessee University, Knoxville, p1-86. 2005.
- [8] S. H. Shin, J. W. Lee, C. T. Kim, S. H. Shin, "The Relationship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Work Values,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10, pp.95-107,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10.95>
- [9] M. H. Hou, Y. H. Kim, "Mediating Effects of Satisfaction with Majors and Major Commit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es of Choosing Majors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n Universities", *Tourism Research*, Vol 43, No 1, pp.275-299, 2018.  
DOI: <https://doi.org/10.32780/kridoi.2018.43.1.275>
- [10] E. J. Oh, K. S. Jeong,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Self-Esteem and Worry on Adjusting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11, pp.110-118,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11.110>
- [11] E. H. Sh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Depression, Anxiety and GRIT",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 33, No 3, pp.156-163, 2020.  
DOI: <https://doi.org/10.15434/kssh.2020.33.3.156>
- [12] H. S. Song, S. H. Lim, "Validity and reliability of Korean version of the Grit Scale for Korea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6, No 3, pp.322-331, 2020.
- [13] M. A. Hwang, *A study on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sense of value in occupation*,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Korea, p1-78, 2000.
- [14] Y. J. Han,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their Work Values of university students*, Dissertation., Kyungsoong University, Busan. p1-46, 2014.
- [15] E. J. Yeu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Vol 35, No 6, pp.1091-1100, 2005.  
DOI: <https://doi.org/10.4040/jkan.2005.35.6.1091>
- [16] H. Y. Kim, "Comparison of Major Satisfaction and Work Value between Nursing Students by the Grades",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Vol 3, No 1, pp.41-51, 2015.
- [17] S. J. Yoo, S. M. Kwon, "Personality Traits of Worriers", *Psychological Science*, Vol 9, No 1, pp.15-37, 2000.
- [18] G. C. Davey, "Worrying, social problem-solving abilities, and social problem-solving confidenc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Vol 32, No 3, pp.327-330, 1994.
- [19] S. I. Lee, "The Mediating Character of Cognitive Avoidance in the Pathological Process of Worry",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 27, No 4, pp.1-19, 2020.  
DOI: <http://dx.doi.org/10.35734/karp.2020.27.4.001>
- [20] J. Y. Park, J. H. Woo, J. E. Kim,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the Grit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ing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1, pp.165-175, 2018.  
DOI: <https://doi.org/10.14400/JDC.2018.16.1.165>
- [21] K. H. Ahn, Y. H. Lee, "A Study on the Types of Work Values of the Juni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17, No 1, pp.1-17, 1999.

- [22] S. G. Park, H. S. Lee, "The Effect of Perceived Work Values of University Students' on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 Focused on University Students of the Hotel Tourism Management Department",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Vol 12, No 1, pp.219-235, 2016.
- [23] T. J. Meyer, M. L. Miller, R. L. Metzger, T. D. Borkovec,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Vol 28, No 6, pp.487-495, 1990.  
DOI: [http://dx.doi.org/10.1016/0005-7967\(90\)90135-6](http://dx.doi.org/10.1016/0005-7967(90)90135-6)
- [24] J. W. Kim, B. B. Mi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Problem Orientation in Worr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ference Material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eoul, Korea. 1, 83-92. 1998.
- [25] G. S. Jeong, E. J. Park, "Relationships among the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Vol 7, No 4, pp.253-263, 2019.  
DOI: <https://doi.org/10.15268/ksim.2019.7.4.253>
- [26] C. H. Kim, J. Y. Kim,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belonging, satisfaction with major, and work values on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6, No 3, pp.259-268, 2020.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3.259>
- [27] H. J. Lee, Y. K. Lee, "Effect of Major Choice Motives of Dance Major Students on Vocational Values and Job Preparation Behaviors",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Vol 35, No 1, pp.1-12, 2018.
- [28] K. E. Yang, K. H. Park, "(The) Effects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Emotional Dysregulation on Worry : mediating effect of experiential avoidanc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19, No 1, pp.187-201, 2014.
- [29] I. S. Lee, M. K. Jeon, M. Y. Lee, "Stress, Gri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Vol 27, No 3, pp.298-306, 2020.  
DOI: <https://doi.org/10.5953/JMJH.2020.27.3.298>
- [30] G. Y. Choi, "Critical thinking,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ompetence of clinical practice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Education*, Vol 30, No 4, pp.1123-1233, 2018.  
DOI: <https://doi.org/10.13000/JFMSE.2018.08.30.4.1223>
- [31] C. T. Beck,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caring for dying pati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36, No 9, pp.408-415, 1997.  
DOI: <https://doi.org/10.3928/0148-4834-19971101-04>
- [32] Y. O. Park, "The Affect of Grit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on Their Career Choice Motivation, Emotional Commitment, and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11, No 1, pp.135-157, 2021.  
DOI: <https://doi.org/10.35273/jec.2021.11.1.006>
- [33] S. J. Lee, J. Y. Park, "The Effects of Grit and Stress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2, pp.269-276, 2018.  
DOI: <https://doi.org/10.14400/JDC.2018.16.2.269>
- [34] N. G. Kim, J. C. Jeong, C. Y. Jang, G. C. Lee, "The Relationships between Work Values, Social Support, and Parental Attitu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Skills and Qualifications*, Vol 8, No 3, pp.125-148, 2019.  
DOI: <https://doi.org/10.35125/jsq.2019.8.3.125>
- [35] J. Y. Jung, "The Analysis on the Casual Model between University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Occupational Satisfaction mediated by Occupational Valu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31, No 1, pp.53-83, 2013.
- [36] S. W. Jang, A study on the types and differences of perceptions of MZ generation and previous generation office workers on good jobs : using Q methodology,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1-119, 2022.

정 경 숙(Kyeong Sook Jeong)

[정회원]



- 2007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2017년 2월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

〈관심분야〉

자아존중감, 걱정, 건강증진행위